아트사커 격침 할 '특급어뢰'?

아드보, 이번엔 어떤 마법

토고전에서 '마법과 같은 용병술'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쓴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제2탄 매직'을 준비하고 있다.

상대는 G조 최약체 토고보다 훨씬 강한 '아트사커' 프랑스다. 차원이 다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적수임에 틀림없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아직까지 프랑스전에 대비해 어떤 복안도 드러내놓지 않고 있다.

토고전에서 후반 중앙 수비수 김진규(이와타)를 빼고 안정환(뒤스부르크)을 투입한 전술을 '3-4-3'에서 '4-2-4'로 전환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일단 스리백(3-back)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월21일 그리스와 평가전 이후 13경기 연속 가동했던 포백(4-back)이 지난 4일 가나와 최종 모의고사에서 뒷공간과 좌·우 측면을 잇따라 돌파당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스리백으로 나선 토고전 전반에도 예상외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였다. 오히려 후반 포백으로 전환한 뒤 공격수 4명을 투입한 포메이션의 변화가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전반 토고의 모하메드 카데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인 토고와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극약처방'을 쓴 것이지 정상적인 선발 라인업으로 내세울 포진은 아니다.

스리백을 고수했을 때 아드보카트 감독의 고민은 좌·우 불균형에 있다. 토고전에서는 김진규(이와타), 김영철(성남), 최진철(전북)을 중앙 수비수로 놓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에 이영표(토튼햄), 송종국(수원)을 배치했다.

중앙에는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과 이호(울산)가 나섰다. 이 포메이션에서 관건은 좌·우 측면의 활발한 공간 침투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오랜 재활을 거친 송종국은 아직 100%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출전 정지 징계가 풀린 김동진(FC서울) 카드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줄곧 왼쪽 라인에만 서온 김동진을 선발 투입할 경우 이영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유럽 강호 노르웨이와 유럽 현지 1차 평가전에서 후반 송종국 대신 김동진을 투입하고 이영표를 오른쪽으로 빼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 때는 전체 포메이션이 포백이었다.

중앙 미드필더진에도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이을용과 이호가 나선 토고전에서는 공격진 쪽으로 예리한 패스 투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수비에 안정감이 있는 김남일(수원)을 쓰면서 이을용에게는 공세의 포문만 열도록 주문을 가할 수도 있다.

박지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복귀시키고 스리톱(3-top) 라인을 새로 짤 수도 있다.

스리백 포메이션 유지…중앙 미드필더진 대거 교체

박지성 공격형 미드필더 복귀…'안정환 선발' 고려

또 안정환을 선발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 후반에 쓸 '비장의 카드'가 없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프랑스는 14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스위스전에서 티에리 앙리(아스날)을 원톱으로 하는 4-2-3-1 시스템을 가동했다.

프랑스도 시종 무기력한 빈공에 그쳤다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 공격 포메이션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천수 프랑스전 구상(?) 14일 오후(한국시간) 토고전 승리 후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대표팀 회복훈련 도중 이천수가 그라운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력수비로 압박하고 역습 노려라

태극전사들 프랑스 허점 찾기

아드보카트호 태극전사들이 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아트사커' 프랑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스위스와 첫 경기에서 4-2-3-1 전술을 채택했다. 레몽 도메네크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다비드 트레제게(유벤투스)를 벤치에 앉히고 티에리 앙리(아스날)만 1선에 투입하는 원톱을 가동했다. 2선에는 왼쪽부터 프랑크 리베리(올랭피크 마르세유),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 실뱅 윌토르(올랭피크 리요네)를 세웠다.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 클로드 마켈렐레(첼시), 파트리크 비에라(유벤투스)를 배치했고 포백에 왼쪽부터 에리크 아비달(올랭피크 리요네), 윌리암 갈라스(첼시), 릴리앙 튀랑(유벤투스), 윌리 사뇰(바이에른 뮌헨)을 포진시켰다. 프랑스는 그러나 공격 삼각편대로 파괴력을 발휘해야 할 앙리, 지단, 윌토르가 부진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태극전사들은 프랑스-스위스전 소식을 들은 뒤 '레블뢰 군단'에 대해 한결같이 "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드보카트호 팀원들은 프랑스를 깰 비책으로 압박과 스피드를 꼽았다.

4년 전 이미 프랑스와 맞대결을 벌인 경험을 갖고 있는 이영표(토튼햄)는 프랑스의 간판 앙리를 막을 대책으로 "조직적인 수비, 즉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표는 토고전에서 비교적 조직적인 수비가 잘 이뤄졌다며 수비 조직력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압박이 살아나면 프랑스의 중원을 묶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4년 전 프랑스와 맞붙었을 당시에도 시나리오는 비슷했다. 한일월드컵 직전 평가전인 2002년 5월26일 히딩크호는 프랑스에 2-3으로 아깝게 졌다. 경기 내용 면에서는 대등했다.

14일 프랑스 대표팀의 하멜른 미디어 센터에서 인터뷰에 응한 앙리도 "한국은 역동적이고 압박이 강하다.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압박과 스피드'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